

해남대대장 '2명 사망' 증언과 달리 최소 3~7명 사망한 듯

진상조사위 유해 발굴 계기로 본 5·18 당시 해남에선 무슨 일이?

당시 대대장 “병력 200명 목표로 보내 방위병력 100명 소집 실패 배분” “1명 부대내 매장·1명 이송” 주장했지만 유골 3구 발굴로 신빙성 떨어져 당시 부대 근무 병력 “PX 앞 시신 3구 방위병에게 매장하게 했다” 증언

해남군 해남읍 백야면 해남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5·18 관련 사망자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굴(5월 15일자 광주일보 1면)되면서 1980년 5월 당시 해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당시 육군 31사단 93연대 2대대(해남대대)장을 지낸 장운태(83·당시 중령)씨는 5·18 관련 사망자가 2명 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최대 7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씨는 16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5·18 당시 해남에서 사망한 인원은 2명이고, 1명을 부대내에 매장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당시 해남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광주에서 발생한 5·18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1980년 5월 21일 시민군들이 군용 차량을 타고 와 실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광주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21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시민군들이 찾아와 “총은 있으니 실탄 10만발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부대를 습격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3연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지휘하는 해남대대 병력 200여명을 목표로 보낸 후라 부대안에는 대대장, 참모 4명 등 총 12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장씨는 방위병력 100여명을 소집해 현역 군복을 입고 실탄까지 배분해 20명씩 5개 조로 해남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22일 장씨는 흑시 모를 교전에 대비해 93연대에 사격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연대에서는 “최대한 총을 쏘지는 말되 만약 쏘거든 무릎 아래를 쏘라”는 답변이 돌아와 이를 방위병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후 23일 새벽 5시경 해남 우슬재를 통해 들어오던 시민군들이 방위병에게 막혔고 방위병의 사격에 한 명이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장씨는 기억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해남 북평리에서 한차례 더 해남대대 병력의 사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우슬재에서 사망한 사람은 부대내에 매장했고, 북평리에서 숨진 사람은 가족이 인계를 요청해 헬기에 실어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층빌딩에서 지금까지 조사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 하지만 최근 이 부대 인근에서 5·18당시 매장됐다는 당시 부대원의 증언으로 유골 3구가 발굴됨에 따라 장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해남에서 사망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한 증언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 도로에서 사망한 김귀환씨와 해남 학동리에서 사망한 박영철씨의 사망만이 확인되기 때문에 장씨는 이 2명에 대한 증언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검시조서에는 모두 M16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했고, 흉부를 관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해남대대의 병력을 총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가 부대원의 총격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를 모를

수 없다는 점에서 장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5·18조사위의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조사내용도 장씨의 증언과는 달랐다. 해남대대 병력에 의한 총격 사건은 3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최소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23일 오전 6시경 해남대대 앞 국도상에서 버스 1대가 군의 총격으로 전복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경 해남 우슬재에 배치돼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병력이 시민군 트럭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총상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경에는 시위대 50여 명이 탄 버스 2대가 마산면 상동리에서 차단병력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총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시위대는 군부대에 연행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대에 근무한 병력은 부대 내 PX 앞에 시신 3구를 늘어놓고 있다가 방위병에게 관측에 넣어 매장을 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발굴장소를 증언한 병사는 3구의 유골을 매장했다가 지문채취를 위해 다시 한구를 꺼냈지만, 부패가 심해 지문 채취에 실패했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선대 5·18조사위원장은 “이번에 발굴된 유골 3구에 대해 나주·영암·목포·해남·강진·완도·진도 등지에서 실종·행방불명으로 신고된 24명의 가족 DNA 대조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종 DNA 포렌식 조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기념재단 ‘2023 광주민주포럼’ 개최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 주제 의견 공유

5·18기념재단이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센터 대강홀에서 ‘2023 광주민주포럼’을 열었다.

광주민주포럼은 국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국가폭력, 지역 간 분쟁 등 아시아 시민사회의 의제를 나누고 창조적 대안과 연대를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로, 참가자들은 이날 지역별 민주주의의 후퇴,

전쟁과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 국민의 참여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건설 노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전 국회의원이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정근식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갈루 압디타 ‘아시아 정의와 권리’ (AJAR) 이사가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회복’에 대해 발표

했다. 이어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언론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발제했으며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만다라 사르마는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발제를 내놨다. 천다니에 와타와라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상임이사도 민주적인 선거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발표를 했다. 포럼은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제임스 허난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민주·인권 인사들이 모여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인 미하일 아르신스키가 진행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8일 5·18묘지 인근 도로 일부 통제

오전 7시~11시 청옥삼거리서 수곡·태령삼거리 구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인근 도로가 일부 통제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교통 혼잡 우려에 따라 기념식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청옥삼거리에서 수곡·태령삼거리가 교통이 통제된다고 16일 밝혔다.

구간이다. 광주시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매월06번의 경우 국립묘지와 영락공원까지 연장해 운행한다.

아울러 오는 19일 새벽 2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부터 금남공원까지 구간의 교통도 통제된다.

17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민주평화대행진 등이 열리는 구간의 도로가 일부 통제된다. 유동사거리~금남공원, 광주공원~금남공원, 조선대 정문~금남공원 3개 구간에서 차도 일부분이 통제된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기념식 당일 많은 국민들이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할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념식 초청인사 외에는 기념식 이후 시간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버이날 소란’ 폭주족 5·18 기념일 재등장?

경찰, 무관용 원칙 처리키로

어버이날 새벽시간대 폭주행위로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던 이륜차 무리가 5·18 기념일에 재등장을 예고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SNS(틱톡)에

18일 자정을 전후로 광산구 수완·첨단 지구 일대에서 이륜차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5·18 새벽에 다시 모이자는 내용의 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어버이날(8일) 수완지구 일대에서 4시간 넘게 곡예 질주를 벌이며 시민들을 위협했던

무리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다수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로, 경찰은 배달 업체에 개별 경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8일에는 이들을 현장에서 해산시켰지만 5·18 당일엔 추모 기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 기동대, 광산구청 등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집결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